

# “코로나19, 난민촌·분쟁지에 더 큰 재앙”

### 방글라·그리스 등 난민촌, 시리아·예멘 등 내전지역 우려 ↑ EU 집행위 “그리스에 난민 취약계층 이주 요청했으나 거절”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면 비누로 손을 깨끗이 닦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고 권하지만 이러한 행동수칙들은 난민 수용소와 분쟁지역에서는 그저 ‘그림의 떡’이다.

정치적 탄압을 피해, 생계를 위해, 전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국을 등지고 떠난 이들이 많지만 수만 명씩 운집한 곳에서 청결을 유지하고 이웃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와 다를 바 없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는 7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난민들에게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난민에게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코

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국경을 봉쇄해 줄, 자가격리를 권고해 줄, 이동제한령을 내려 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 정부가 없기 때문이다.

미얀마 정부의 탄압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이주한 로힝야족, 터키 정부의 국경 개방으로 그리스에게 섬으로 몰려든 시리아 난민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적인 취약 계층으로 꼽힌다.

10년째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포성이 오가는 시리아, 역시 오랜 기간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예멘과 리비아, 이슬람국가(IS)와 싸우느라 난민이 발생한 이라크도 코로나19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분쟁지다.

비록 이들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공식 발표는 없지만 그렇다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청정지역’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무함마드 하미드 자만 보스턴대 의공학과 교수는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에 “자료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코로나19 확진 통계가 나오지 않았다는 데서 “잘못되고 위험한 위안”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난민촌에 거주하는 마무드 삭샤(65)는 WP에 “만약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온다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라며 “이는 바이러스 때문만이 아니라 세계가 우리에게 문을 닫고 혼자 죽도록 내버려 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각국 정부는 난민촌과 분쟁지역의 상황이 여차하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있는 듯하지만, 이들에게 선택을 주는 노리는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노르웨이 난민위원회(NRC)는 “난민과 이주민은 정당한 근거 없이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는 비난의 대상이 제일 먼저 되곤 한다”며 “우리는 유럽 전역에서 포퓰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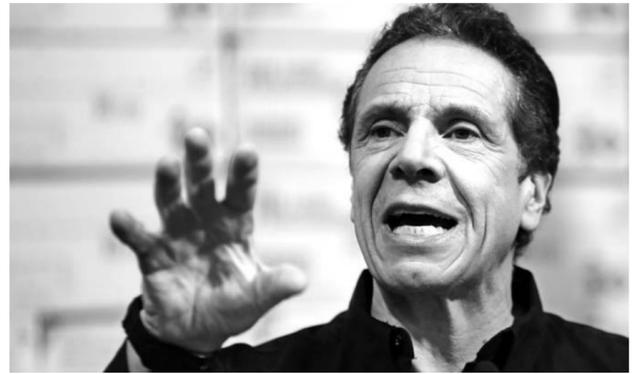
트 정치인들이 이주민과 전염병 발병을 연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았다”고 비판했다.

무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각국 정부에 인권단체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으며, 난민촌과 분쟁지역에 있는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취약지역을 둘러싼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으나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좀처럼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월바 요한스 내무 담당 위원은 그리스에 예기해 섬에 모여있는 난민 4만2천명 중 일부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전했다.

요한스 위원은 노약자와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에 노출됐을 때 감염 위험이 큰 난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그리스 정부는 난민 중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쿠오모 주지사 “뉴욕주 확진 사흘마다 두배로”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 주지사 24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제이콥 K. 자비츠 컨벤션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뉴욕 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5665명으로 증가했다면서 사흘마다 두배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스페인서만 5400명 유럽 의료진 수천명 확진 코로나 ‘전쟁’에 대형 난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 수천 명이 스페인 등지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보건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보건부는 자국 코로나19 확진자 4만여명 중 약 14%에 해당하는 5400여명이 전문 의료진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처럼 전체 확진자 중 보건 의료진의 비율이 두 자릿수를 차지한다고 보고한 국가는 없었다.

의료진의 코로나19 감염은 스페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다른 국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30명 이상의 의료진이 코로나19로 사망했고 수천 명은 자체 격리했다.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의 도시 브레시아에선 의사와 간호사의 10~15% 정도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현지 의사가 밝혔다.

프랑스 파리의 공공병원 체계에선 490명이 감염됐다. 전체 인력 10만명 중에선 아직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과 미국에서도 시작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페인 마드리드 의사 조합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현지 주요 병원인 라 파스 병원에서 전체 인력의 6%인 426명이 자가 격리 중이다. /연합뉴스



코로나 순찰 나선 독일 기마경찰 독일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장소에서 2인 초과 접촉 제한령을 내린 가운데 24일(현지시간) 드레스덴에서 기마경찰이 거리를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엔안보리,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첫 화상회의의 콩고 내정 불안 등 논의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역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됐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상황을 의제로 한 비공식 회의였으며, 일종의 시범 가동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공식 안건은 올리지 않았다고 한 외교관을 인용해 AFP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사를 포함한 각국 대표들은 자택에서

인터넷을 통해 회의에 참석했으며, 언론 접근은 제한했다.

화상회의는 DR콩고의 내정 불안을 해결할 대책 논의에 이어 향후 안보리 운영에 대한 내용까지 4시간 이상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도중 인터넷 연결이 끊어지거나, 일부 참석자의 전원이 꺼지면서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

지금까지 안보리가 현장의 직원이나 중

인에 대해서는 화상으로 진출토록 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15개국 참석자 전원이 인터넷을 통해 회의를 연 것은 유엔 사상 처음이라고 AFP가 전했다. 기술적 문제로 동시통역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회의는 영어로만 진행됐다.

그동안 거부권이 있는 러시아는 가상 투표 방식에 반대했으며, 투표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직접 투표를 요구해왔다. /연합뉴스

## “트럼프 재선 캠페인 슬로건 미국을 한국처럼 위대하게로 바꿔야”

美 방송인 코로나 대응 비판 “한국은 모든 것 파악, 엄청난”

미국 유명 방송인 하워드 스텐(66)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면서 그의 재선 캠페인 슬로건을 “미국을 어쩌면 한국처럼 위대하게”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인터넷 라디오 시리우스 XM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프로그램 ‘하워드 스텐 쇼’를 진행하고 있는 스텐은 이날 방송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극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캠페인 슬로건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내세웠고, 올해 재선 캠페인 슬로건으로는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를 내세우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신의 집 ‘벙커’에서 방송을 진행한 스텐은 “한국은 마스크를 보유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파악했다. 엄청난(it’s crazy)”라며 감탄했다.

더힐은 스텐의 이러한 발언이 한국은 코로나19에 대한 공격적 대응으로 널리 칭찬을 받고 있지만, 미국은 초반에 검사사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판을 받는 와중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스텐은 “내가 도널드 트럼프를 아는 데, 그는 여성을 1부터 10까지 점수 매기는 데 전문가다”라면서 “그러나 그는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트럼프)는 신문과잡지의 표지에 등장하거나 TV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을 좋아한다”면서 “그는 시스템에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의 일이 아니다”라고 조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뉴욕의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스텐의 프로그램에 종종 출연했다고 더힐은 전했다. 그러나 스텐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의 지원 유세 요청을 거절했다. /연합뉴스

## 하버드대 총장 확진...“코로나 극복에 용기·지성 필요”

미국 하버드대학의 로런스 S. 배카우 총장 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CNN 방송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배카우 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2일 기침과 고열, 오한, 근육통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어제 진단을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2주 동안 집에서 격리 생활을 하며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학 구성원들을 향해 “공중보건 전문가의 지침, 정부 관리들의 조언과 행정명령을 따라야 한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분의 용기와 창의력, 지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sup>해방</sup>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sup>해방</sup>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sup>해방</sup>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b>대상자</b>	신협 내부상사기(신용등급 등)를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b>대출기간</b>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b>대출한도</b>	최대 1,000만원 이내	<b>상환방식</b>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b>대출금리</b>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b>필요서류</b>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